

# Daily Auto Check

2020.11.10(Tue)



## 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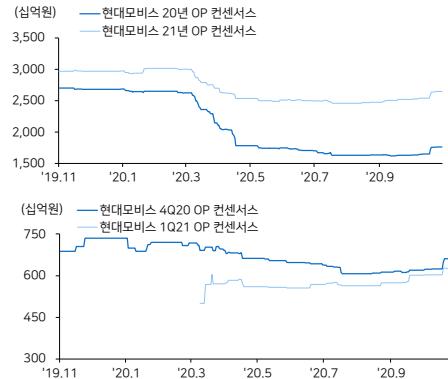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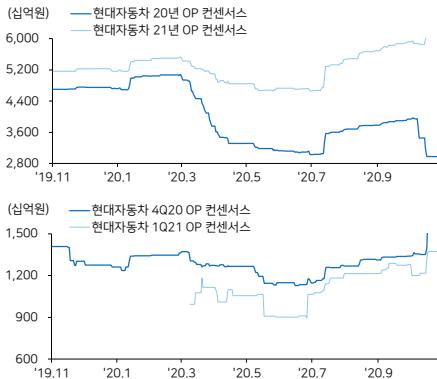
RA 이다빈

02.6454-4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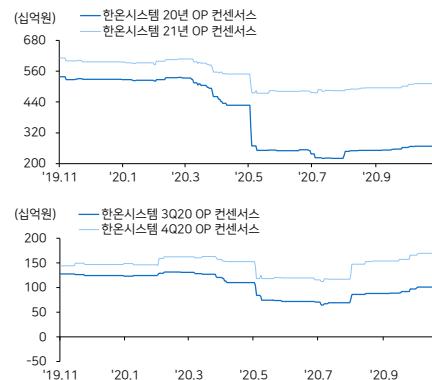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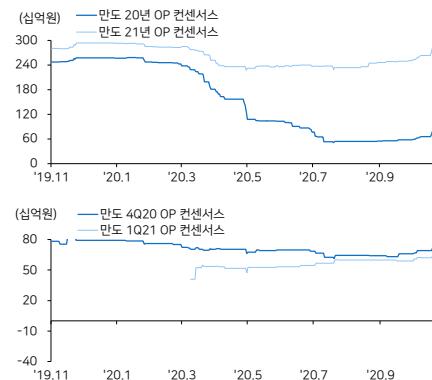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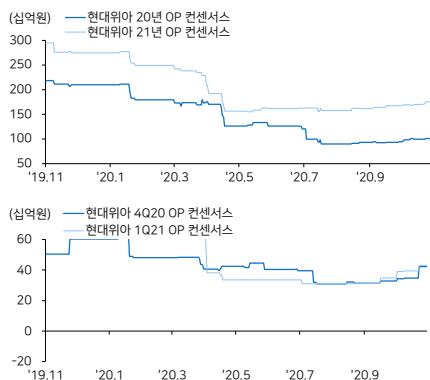
dabin.lee@meritz.co.kr

##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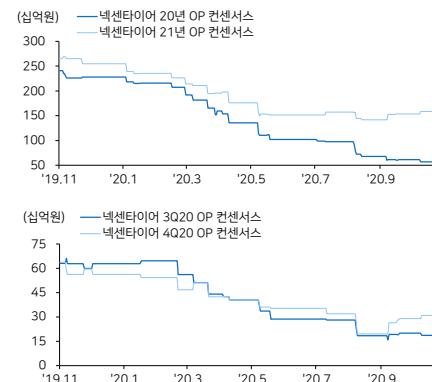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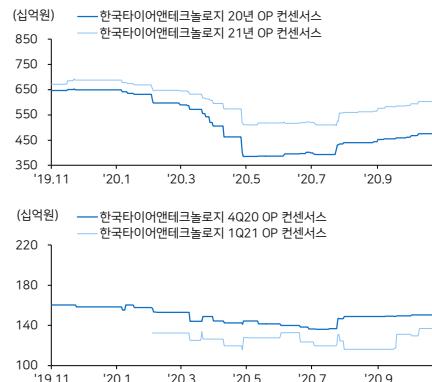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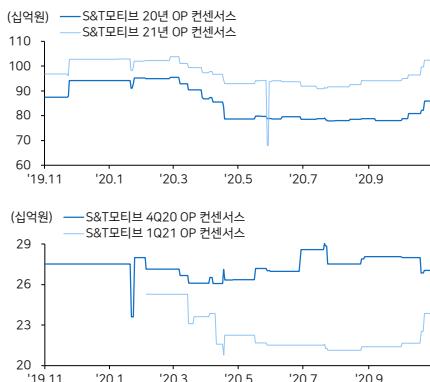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## 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## S&amp;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

## 현대·기아차 모든 차종에 엔비디아 커넥티드카 기술 탑재 (이데일리)

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(AI)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(NVIDIA)와 커넥티드 카 운영의 핵심 기술인 컴퓨팅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차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.

<https://bit.ly/2ImD0jm>

## 송호성 기아차 사장, "2021년 전기차 핵심 타깃은 고급차 시장" (조선비즈)

송호성 기아자동차사장이 2021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본격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"기존 기아차 고객보다 월 단계 고급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"고 말함. 또 "(한국계사인) 현대차보다 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할 것"이라고 함.

<https://bit.ly/35fOQU>

## 기아차 '니로 EV' 級 전기차 시장 '넘버1' (더그루)

기아차의 전기차 모델 'e-니로'가 지난달 영국 E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, 기아차는 10월 한 달동안 영국에서 e-니로 833대를 판매, 전기차 베스트셀링 1위를 기록. 이는 점유율 기준으로 8.9%에 달하며 기아차 전체 영국 판매에서 13.7%를 차지.

<https://bit.ly/2JHBXq3>

## 중고차 시장 진출 예고한 현대차... '가격 전략' 이 상생 관건 (디지털타임즈)

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'가격 전략'이 상생의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. 중고차 가격 방어에만 치중할 경우 시장 논리가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.

<https://bit.ly/2U8pUhB>

## 현대차,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협상 중" (디지털타임즈)

소프트뱅크가 2017년 구글로부터 인수한 로봇 개발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0일(현지시간) 보도.

<https://bit.ly/36IP9sw>

## 현대차, 미국 엘리베이터 공장서 신형 투싼 생산 (연합뉴스)

현대자동차가 준중형 SUV 신형 투싼(Tucson)의 복미 시장 시판을 앞두고 한국의 울산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엘리베이터 공장에서도 신형 투싼을 생산하겠다고 밝힘.

<https://bit.ly/36nEFT>

## 현대차, 美 판매 치하 96% AEB 장착... '착한 약속' 실천 (더그루)

현대자동차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약속한 '고객 안전'을 실천해 주목을 끌고 있음.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해 판매된 차량의 96%에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 장착. 이는 2016년 현대차가 모든 차량에 AEB을 표준 장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로 진행.

<https://bit.ly/2laV1wL>

## 자동차판매협회, "세계 최 판매 9월 들어 올해 첫 증가" (조선비즈)

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는 9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795만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.0% 늘었다고 밝힘.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, 중국, 인도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판매가 늘었음.

<https://bit.ly/3keqGdE>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